



도하 아시안게임



한국축구 8강 진출

6일 새벽 카타르 도하 알 라이안 스포츠클럽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축구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에서 후반 오범석(오른쪽)이 중거리 슈트로 결승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이모저모

한 종목서 금메달 3명일때 국가 연주 순서는?

알파벳 순으로 연주

○2006도하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한 종목에서 금메달리스트가 3명이나 배출되면서 국가 연주 순서, 단상에 오르는 순서 등이 관심을 끌었다.

5일 카타르 도하 아스파이어홀에서 벌어진 남자 체조 종목을 결승 안마 종목에서는 한국의 김수면, 북한의 조정철, 일본의 도미타 히로유키 등 3명이 공동 금메달을 수상했다. 일단 국가 게양 순서부터 흥미를 자극했다.

일장기가 1위를 뜻하는 가운데에 자리했고 태극기가 그 왼쪽에, 북한 국기는 오른쪽에 자리 잡았다. 물론 다 같은 금메달이었기에 게양되는 국가 높이는 같았다.

1위 단상에 올라 잡은 자리도 국가 게양 순서와 똑같았다. 국가 연주 순서도 이를 따라갔다.

예선 성적과 상관없이 결선 점수가 같을 경우 국가별 알파벳 순으로 순서를 정하기 때문이다.

박태환 가족 겨우 입장권 구입

○도하아시안게임에서 이미 2관왕을 이룬 박태환이 경영 마지막날 자유형 1,500m

에서 3관왕을 달성할 때까지 가족의 응원을 받아 힘을 낼 수 있게 됐다.

6일 남자 자유형 400m에서 박태환이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관중석에서 지켜본 아버지 박인호씨는 "표가 없어서 못 들어올 뻔했는데 대한수영연맹 측에서 신경을 써줘서 입장권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태환이가 6일 오후 자유형 100m 예선을 땀 때만 표를 사서 들어오면 이후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수영연맹에서 표를 구해주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10세 이라크 수영선수 인기

○수영 모자도 없었다. 수영복이나 물안경도 첨단 스포츠과학을 응용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성적도 좋을 리 없었다.

하지만 키 155cm, 몸무게 44kg의 '뽕뽕머리' 수영 소년 아메드 알리(10·이라크·사진)는 희망을 품고 힘차게 물살을 갈았다.

제15회 도하아시안게임 경영 남자 200m 개인혼영 예선 2조 경기가 열린 6일 카타르 도하 하마드 아쿠아틱센터. 선수들이 입장할 때 맨 앞에 유난히 키가 작은 선수가 씩씩하게 걸어들어왔는데 바로 알리였다.

알리는 20년 만에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된 이라크 대표선수단 80여명 가운데 막내, 더욱 특이한 건 이라크 경영 대표팀은 3명인데 나머지 2명이 알리의 형이라는 점이다.

큰 형 아메드(14)와 작은 형 알리(12)는 나란히 자유형 200m와 400m에 도전했지만 예선 탈락했고 이날 다시 함께 출전한 자유형 100m에서도 결선행에 실패했다.

공동취재구역에서 만난 알리는 10세 소년의 모습 그대로였다. 6살 때 삼촌의 손에 이끌려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알리는 팔, 다리도 가늘었고 아직 좁은 가슴이 벌어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짙은 눈썹과 커다란 두 눈은 다부져 보였고 희망도 남달랐다.

그레이 일본 간다고? KIA '허탈'

日 스포츠신문 "아쿠르트와 교섭 막바지 단계"

KIA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후임 용병 물색"

KIA의 '특급 에이스' 그레이싱어(31)의 일본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 산케이스포츠와 스포츠 호치 등 일본 스포츠 신문은 6일 "센트럴리그 야쿠르트 스왈로스 KIA에서 뛰고 있는 그레이싱어의 영입을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들은 "후투타 야쓰야 감독이 비디오로 그레이싱어를 살펴본 뒤 영입을 확정했다"면서 "교섭은 거의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이번주 내로 정식 발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그레이싱어의 일본 진출은 공식 발표만 남았을 뿐 입단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시즌 한국시리즈 진출을 목표로 세운 KIA는 느닷없는 그레이의 일본 진출에 허탈한 모습이다.

지난 2005년 KIA에 입단한 그레이싱어는 올 시즌 29경기에 나서 14승 12패 방어율 3.02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따라서 KIA는 내년 시즌 그레이를 1선 발로 내세우고 김진우, 윤석민, 이상화 등과 함께 막강 선발진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KIA는 올 연봉 30만달러에서 최소 100% 이상 인상된 조건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레이의 일본 진출을 감지했다.

그레이는 KIA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심지어 신장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고 싶다는 운동선수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레이의 일본 진출을 뒤늦게 파악한



KIA는 그레이와 재계약 불발에 대비, 국내 투수를 비롯해 후임 용병투수들을 리스트업 해 놓은 상태다.

KIA 구단 관계자는 "지난해도 힘들게 재계약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본인이 일본으로 간다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후임 용병 투수를 물색중이지만, 한국 야구의 적용 여부가 문제"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기주 연봉 급상승

올보다 150% 오른 5천만원에 도장

'피터팬' 한기주(19·이하 KIA)가 연봉 인상을 150%의 대박을 터트렸다. 또 우완투수 이상화(26)도 지난해 보다 200% 인상된 연봉 재계약에 도장을 찍었다.

KIA는 6일 "한기주와 이상화를 비롯한 24명과 재계약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올 시즌 선발투수에서 '특급볼펜'으로 변신한 한기주는 44경기에 나서 10승11

패 평균자책점 3.26을 기록하는 활약으로 연봉 2천만원에서 150% 오른 5천만원에 재계약을 마쳤다. 또 45경기에 선발과 중간계투 우원으로 등판해 5승6패에 평균자책점 3.87의 좋은 성적을 거둔 이상화

도 지난해 연봉 2천만원에서 200% 인상된 6천만원을 받게 됐다.

KIA의 역대 최고 인상률은 2003시즌을 마치고 신용운이 기록한 300%. 신용

운은 당시 2천700만원에서 단숨에 8천100만원으로 점프했다.

이밖에 장원과 박정태도 각각 1천200만원과 1천만원이 오른 4천200만원과 3천500만원에 재계약을 마쳤고, 조태수, 강철민 등도 인상된 연봉으로 재계약에 합의했다.

반면 이대진은 700만원 삭감된 6천300만원에 재계약했다.

한편 KIA는 재계약 대상자 54명 가운데 47명과 재계약을 맺어 87%의 재계약률을 기록했다.

현재 미계약 선수수는 장문석, 홍세완, 김상훈, 신용운, 한규식을 비롯해 도하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있는 이용규, 윤석민 등 7명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영표 풀타임 출전...평점 6 'OK'

토트넘, 미들즈브러에 2-1 승

이영표(29·토트넘)가 오랜만에 왼쪽 수비수로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 승리에 보탬이 됐다.

이영표는 6일 새벽 홈 구장인 런던 화이트 하트레인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06~2007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6차전 미들즈브러전에 원래 포지션인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해 팀의 2-1 승리를 거들었다.

이영표가 정규리그에서 마지막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던 것은 지난달 20일 블랙번전으로 당시에는 오른쪽 윙백으로 나섰다.

특히 마틴 올 토트넘 감독은 그동안 포지

션 경쟁을 시켜왔던 베누아 아소 에코토를 엔트리에서 빼 이영표의 주전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전반 시작과 함께 오른쪽 슈팅으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 넣은 이영표는 공격적인 오버래킹과 안정된 수비를 펼쳐보였다.

이영표는 경기가 끝난 뒤 영국 축구전문 사이트 '스카이스포츠'로부터 'Okay(좋았다)'라는 평가와 함께 평점 6을 얻었고, 토트넘은 올 시즌 6승4무6패(승점 22)를 거두 10위에 올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Chinese language school (리틀자이니 中国語 学院) with text: 중국어 3개월이면 된다!!

Advertisement for wedding services (VIP전문 propose) with text: 대한민국 최대의 국내·국제결혼 전문회사